



울산미소 365

"동네 어르신들께 배움을 드렸는데 너무 좋아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동민 모두 건강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부영(72·울주군 은암읍)

경상일보·초록울산 공동기획 **희망명장 나눔스토리**

김석호 울산 공구몰 대표



지난 2011년부터 초록울산 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고 꾸준히 정기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김석호 공구몰 대표.

"TV서 어려운 아이 사연 접한뒤 참여 결심"

"남 도우며 나눔의 의미 깨달아 나의 나눔이 동기부여가 되길"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60) 울산 공구몰 대표가 경상일보와 울산MBC, 초록울산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울산, 다시 희망으로' 프로젝트의 희망명장에 이름을 올렸다. 6~7년전부터 개인적으로 나눔활동을 펼쳐온 그는 이번 희망명장 참여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소망도 전했다.

■ '울산 다시 희망으로' 희망명장 참가현황
정기 후원 △대덕사 40만원 △공구몰 5만원
*목표 1000명 후원자 개발(선포식 이후 총 338명 참여)

김 대표는 "예전에 '총각아빠'라고 부르던,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힘든 사정에 어렵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당시 나도 형편이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눔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됐다"며 "어렸을 때도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탈피하려고 하다보니 애착을

갖고 나눔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구 진장동에서 공구몰이라는 가게를 운영하는 그는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해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는 일을 해왔다.

김 대표는 "최근에 우연히 TV를 보면서 정말 형편이 어려운 아이 사연을 접했다. 그때 마침 초록울산 어린이재단과 연락이 닿았고, 희망명장에 참여할 것을 결심했다"며 "저도 TV 등 매체를 보고 참여했듯이, 울산의 어느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돼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로 뿌듯할 것 같다"고 어보였다. 정세홍기자 aawe0812@ksilbo.co.kr



(사)천수복지회(회장 이상일)는 회장 이취임식 및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울산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4500만원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의 18개교에 전달했다.



울산중앙병원(이사장 서중환)과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위원장 조영태)은 28일 중앙병원 첨단의료센터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봉사사업 공동참여 등 MOU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수기자

7회 울산교육상, 임영무·박근하씨

울산시교육청은 제7회 울산교육상 수상자로 초등교육 부문에 전 울산시교육과학연구원 임영무, 중등교육 부문에 전 학성고등학교 박근하 교장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영무 박근하
무 교육연구 전 교육연구관 전 학성고 교장 관, 중등교육

전 울산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임영무 교육연구관은 43년간을 근무하면서 훌륭한 스승상의 귀감이 됐다. 퇴임 후에도 각종 교사 연구단체 활동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학성고등학교 박근하 교장은 36년간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함양에 노력했다. 퇴임 후에도 울산교육삼락회를 이끄는 등 울산교육 발전에 노력했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서 열린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어려운 이웃들 힘내세요" 울산 기업·단체 '나눔' 앞장

항만공사·동구CK치과병원장 등 울산공동모금회에 기부 잇달아

울산지역 기업·단체 등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강종열)는 28일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이웃돕기 성금 2104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금은 공사 임직원 110여명이 모은 것으로 모금회를 통해 백혈병 소아암협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김기형 동구CK치과병원장도 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기형 병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냈으면 하는 마음에 성금 모금에 동참하게 됐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후성 울산공장(공장장 송근)과



울산항만공사(사장 강종열)는 28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104만원을 전달했다.



김기형 동구CK치과병원장은 28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주)후성 울산공장(공장장 송근)은 28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700만원을 전달했다.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28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직원들도 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하자 회사도

성금을 보태 마련된 것이다.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성대)도 이날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세홍기자



울주군, 온산읍 주민 건강케어 서비스 협약 체결

울산 울주군은 28일 군청 8층 비둘기관에서 온산읍 주민들을 위한 건강케어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온산읍 소재 기업인 일진에너지(대표 이광섭)가 온산읍 노인들을 위해 3000만원의 성금을 지정기탁해 마련됐다. 지정기탁된 성금은 (예비)사회적 기업인 헬스디자인을 통해 온산읍 주민들에게 맞춤형 건강케어 서비스로 제공된다. 건강 나눔 협약은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장열 군수는 "협약을 통해 의료 취약지역인 온산읍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건강, 여가, 사회활동 등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훈봉기자 bong@ksilbo.co.kr



국제토티리 372지구 울산 동부로타리클럽(회장 박운제)은 28일 동구청에 드림스타트 저소득아동과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해 달라며 720만원을 전달했다.



현대중공업 직원 남기일·김현수·김도윤·이태영·홍원중·최철씨는 28일 연말 우수성과포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기성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기수)은 28일 울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명상산업(주)(대표 장수철, 왼쪽 네번째)은 28일 울산 남구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울산 형틀분회(지회장 이진명·왼쪽 다섯번째)는 28일 북산동 주민센터에 사랑의 쌀 200포(5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